

【논 문】

## 만주 · 대중소설 · 동아시아론 - 조흔파의 실록소설 『만주국』 -

조 성 면\*

### ┃ 차 례 ┃

1. 서론 - 방법으로서의 푸이와 조흔파라는 스토리텔러
2. 만주문학의 현황과 『만주국』의 위상 그리고 독법의 문제
3. 『만주국』의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의 계보
4. 아나운서 - 작가가 그린 ‘푸이’와 ‘동아시아’
5. 『만주국』과 만주국
6. 결론 - 『만주국』이 거둔 것과 남긴 것

### 국문초록

조흔파의 『만주국』(1970)은 만주국에 관한 이야기 곧 푸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현대사의 주요 인물과 정치적 사건을 그린 장편 실록소설이다.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 한국소설사에서 베르톨루치의 영화 『타지막 황제』보다 18년이나 앞서 푸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었으며, 동아시아를 뒤흔든 주요 인물과 사건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만주국 운 제목만 『만주국』일뿐 실제로는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과 인물들을 다룬 대중소설이다. ‘실록소설’이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성인 남성 독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정치 야사와 미확인 비사(秘事)를 다루고 푸이를 가십(gossip)성 인물로 전유함으로써 『만주국』은 저널리즘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중소설로 떨어지고 말았다. 작품 발표 시기가 제 쑹화국 말기라는 특수상황 때문이었는지 만주군관 학교 출신인 박정희와 정권 실세들의 이야기를 철저히 배제하고, 항일무장투쟁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 인하대 BK동아시아한국학사업단 연구교수

않는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만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증적인 오류와 함께 동아시아 현대사의 축도라 할 푸이를 통속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만주국’이 갖는 다양하고 중층적인 의미를 간과한 채 성인 남성 독자의 취향에 영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주국』은 이와 같이 많은 문제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망명문학과 이민문학이 주류를 이루는 이른바 한국 만주문학의 한계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에서 만주의 현재성과 당대성을 강력하게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이념이자 방법으로서 동아시아론의 현실성을 가능케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 만주, 만주문학, 조흔파, 『만주국』, 마지막 황제, 아이신줴러 푸이, 동아시아론, 대중소설

## 1. 서론 - 방법으로서의 푸이와 조흔파라는 스토리텔러

지독한 근시에 호리호리하고 구부정한 체구, 절망적일 정도로 무기력해 보이는 얼굴표정... 각종의 기록사진과 영화에 비친 선통제(宣統帝) 아이신줴러 푸이(愛新覺羅 溥儀, 1906~1967)의 모습이다. 푸이는 미디어와 대중문화 텍스트들로 인해 그 이름보다는 ‘마지막 황제’란 별칭으로 불린다. 그가 묘호보다 ‘마지막 황제’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 데에는 베르톨루치(Bernardo Bertolucci, 1940~)의 영화 <마지막 황제>의 영향이 크다. 이처럼 대중문화에 의해 선택적으로 호명, 구축된 가공의 이미지가 실제의 푸이를 압도하는 시물라시옹 효과<sup>1)</sup>로 말미암아 그는 대중들의 머릿속에 실상보다 과장되거나 고착화한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가 푸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든 간에 이 인물이 갖는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거나 가볍지가 않다. 우선 그는 공화제 혁명의 타도 대상인 구체제의 상징이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망명객의 신분에서 제국주의와 왕조체제의 야합으로 탄생한 유사-국가의 황제로 등극하는 인생역전의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다시 전범에서 식물원 정원사로 급전직하하는 등

1) Jean Baudrillard 저, 하태환 역, 1992, 『시물라시옹』 민음사, 9~10쪽.

파란만장한 반전과 몰락의 드라마를 쓴다. 전제국가와 공화제 그리고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등 무려 네 개의 체제를 횡단해온 푸이는 격랑의 동아시아 현대사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헤쳐 나온 문제적 개인이며, 동아시아 현대사의 역사적 기억들을 저장하고 있는 블랙박스 같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 푸이가 등장하는 한국소설이 있다. 바로 조훈파(趙欣坡, 1918~1980)의 『만주국』(1970)이다.

『만주국』은 제목 그대로 ‘만주국’에 관한 이야기 곧 푸이를 비롯한 동아시아 현대사의 주요 인물과 정치적 사건을 그린 장편소설이다.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 한국소설사에서 베르톨루치의 영화보다 18년이나 앞서 푸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었으며, 동아시아를 뒤흔든 주요 인물과 사건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물론 『만주국』이 또 하나의 푸이 시물라크르를 만들고 푸이와 만주를 대중문화 텍스트로 사용해보려고 말았지만, 망명문학 내지 이민문학이 주류를 이루는 이른바 ‘만주문학’의 지평과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또 문학연구방법으로서 동아시아론<sup>2)</sup>의 현실성과 필연성을 입증할 연구대상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작을 쓴 조훈파는 누구인가. 그리고 『만주국』은 어쩌서 연구사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방관적 텍스트로 방치되어 왔던 것인가.

조훈파는 학계나 독자의 주목을 받은 작가는 아니었다. 조훈파 연구의 선편을 잡은 정미경에 의해 그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연구도 정미경의 학위논문과 함께 조훈파의 『알개전』(1954)에 주목한 이해경의 글이 있을 뿐이다.<sup>3)</sup> 이처럼 조훈파는 ‘아동문학가’로서 제한적인 주목을 받았을 뿐이지만, 『알개전』이 청소년 독자

2) 이 글에서 말하는 동아시아론은 자본주의 경제공동체, 지역 안보 및 패권주의 담론, 유교 자본주의론, 동아시아정체성론 등 동아시아를 중심에 두는 동아시아담론들과 구별되는 대안담론을 뜻한다. 창비 그룹을 중심으로 전개된 제3의 대안체제와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상과 지향을 가리키는 의미에 가깝다. 동아시아론의 이념과 지향에 대해서는 최원식, 2009,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창비, 160~162쪽.

3) 조훈파에 대한 논의로 정미경, 2002, 『조훈파 소년소설 연구』 인하대 대학원 석사논문; 이해경, 2009 겨울, 『웃음의 울타리를 넘어 내 곁으로 날 듯 혹은 말 듯 : 趙欣坡의 『알개전』에서 時代를 다시 읽는다』 『아동문학평론』133호 등이 있다.

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또 오랫동안 언론사와 라디오 방송에 몸담고 있었기에 그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만큼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는 1918년 평남 평양시 염점리에서 태어났다. 다른 작가들에 비해 그는 북방문화와 만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성장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조창일은 미두사업 등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 거부이자 개신교감리교회 장로로서 신문물과 교육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유복한 환경 덕분에 광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일(渡日), 1943년 센슈대학(專修大學) 신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이듬해인 1944년 경성방송국 아나운서가 되었다.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1954년 『학원』에 『알개전』을 연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나중에 이 작품은 동명의 영화(1976)로 만들어져 한동안 청소년들의 대명사로 군림했다. 『알개전』의 대성공으로 조훈파는 아동문학 작가로만 인식되는 이른바 조훈파 시물라시옹 현상을 초래한다.

그러나 간단한 약력 검토에서 알 수 있듯 조훈파는 문단문학의 외부에 있었던 이른바 겸업작가였으며, 그의 활동은 주로 방송에 집중돼 있었다. 실제로 『알개전』이 크게 성공했음에도 그는 다시 본업인 방송국으로 돌아가 중앙방송 국장 및 국정홍보처 공보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한국 근세사의 정치적 사건들을 소재로 한 방송소설 <대한백년사>를 집필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대한백년사>는 강화도령(철종)에서 시작하여 김홍집 내각이 시행한 단발령 파동까지 주요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룬 야사-역사소설로 큰 인기를 끌었고, 동양방송에서 무려 5백회 가량 전파를 탔다. <대한백년사>는 후일 수정과 보완을 거쳐 5권 분량의 동명소설로 학원사(1967)와 삼성출판사(1970)에서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출판되었다. 1975년 정음사에서 출판된 『사건백년』은 『대한백년』을 축약한 문고본이다. 이처럼 <대한백년사>는 방송계는 물론 출판계에서도 활용도가 높았던 대중적 콘텐츠였다.

이상의 짙막한 약전에서 알 수 있듯 조훈파는 아동문학가·실록소설 작가·방송국 아나운서 등 장르와 미디어를 자유로이 횡단하는 대중적 스타 리털러였다. 『만주국』은 오랫동안 방송국과 잡지 등의 미디어 분야에서 축

적된 스토리텔러의 감각이 발견하고 만들어낸 ‘물건’이었던 것이다. 이 스토리텔러가 발견한 물건 ‘푸이’는 동북아 현대사의 축소판으로 ‘위만주국’과 복잡다단한 동북아 현대시를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의제는 학술담론으로부터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한국의 독자와 문단이 ‘푸이’에게까지 관심을 가질만한 거를과 시야가 없었고, 무엇보다 그것은 작품의 수준도 문제였지만 자칫 박정희 정권의 심기를 건드릴 지도 모를 위험한 인화물질이기도 했다. 『만주국』이 연재되던 “당시 남한 사회와 국가 이데올로기는 반공주의였고 특히 만주국 정부와 군대에 복무하였던 이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형편”<sup>4)</sup>이었기에 작가나 연구자들 모두에게 ‘만주’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영역이었다. 설사 ‘만주’를 다루거나 혹 만주연구 및 창작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박정희나 만주군관학교 같은 민감한 부분은 여전히 담론의 ‘봉금 지대’로 묶여 있었다. 그렇다면 『만주국』을 통해서 조흔파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푸이와 ‘만주국’을 어떤 관점과 전망을 가지고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이 문제적 스토리를 구성할 때 영향을 준 텍스트들은 무엇이었는지 나아가 동아시아론의 관점에서 『만주국』의 위상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과 밖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 2. 만주문학의 현황과 『만주국』의 위상 그리고 독법의 문제

한국문학사에서 ‘만주’는 독자적인 단위와 범주로 묶일 수 있을 만큼 뚜렷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른바 ‘만주문학’이란 개념과 범주를 받아들일 경우, 만주문학을 독자적인 하나의 국민문학으로 보아야 할지 한국문학사의 하위범주로 설정해야 할지 ‘장르’로 보아야 할지 아직까지 뚜렷한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4) 김재용, 2011. 12, 「안수길의 만주체험과 재현의 정치학 : 국민국가체제 내에서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만주연구』12집, 19쪽.

“滿洲란 복잡한 구렁”<sup>5)</sup>이라는 이효석의 말대로 만주는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혼종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이다. 우선 만주국 자체가 유사-국가였고 심지어 ‘만주’란 말조차도 지명이나 국명이 아닌 족명(族名)이었다. 만주는 1636년 승덕원년(崇德元年) 누르하치(努爾哈齊, 1559~1626)를 계승한 태종황타이지(皇太極, 1592~1643)가 국호를 금(金)에서 청(淸)으로 또 족명(族名)을 제신(諸申, jusŏn)에서 만주(滿洲, mantu)로 고치면서 비롯된 것으로 그것은 공간명이 아닌 민족(滿族)을 지칭하는 이름이었다.<sup>6)</sup> 그리고 어원을 분석해 보면 그 의미는 ‘강한 활’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문 병음으로 채택한 주(洲)는 통상 중국어에서는 지명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같은 혼란이 생긴 것이다. 이런 복잡함과 혼동의 일차적 원인은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괴뢰국가를 세웠기 때문이며 여기에 각국별로 서로 다른 문학적 경향·연구대상·관점 차이로 인해 그와 같은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만주문학연구는 이 복잡적이고 초국민국가적 현상을 국민문학의 관점으로 전유하는 한계를 보임으로써 당분간 이러한 용어의 혼란과 난맥상은 쉽게 정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sup>7)</sup>

현재 “만주(국)문학은 누가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 크게 만주국의 국민문학으로 보는 관점과 “만주국 범주 내에 존재한 다양한 민족들의 문학” 곧 재만 중국인 문학·재만 조선인 문학·재만 일본인 문학·재만 백계 러시아인 문학·재만 몽골인 문학·재만 일본인 문학 등으로 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sup>8)</sup>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만주문학연구의 현황과 용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연구자들은 간도 이민문학<sup>9)</sup> 또는 망명문학<sup>10)</sup>·만주이민문학<sup>11)</sup>·재만 한국문학<sup>12)</sup>으로 지칭하며,

5) 이효석, 1983, 「벽공무한」, 『이효석전집』5권, 창미사, 75쪽.

6) 長山, 송강호 역, 2010, 「manju, 滿洲 명칭 분석」, 『만주연구』10집, 205~206쪽.

7) 尹東燦, 2010, 『滿洲文學の研究』東京: 明石書店, 6~11쪽.

8) 최정옥, 2007, 「만주국문학의 연구」 고려대 중문과 박사논문, 6~7쪽.

9) 오양호, 1996, 『만주조선인문학연구』 문예출판사, 18쪽.

10) 오양호, 1996, 위의 책, 27~28쪽.

11) 오양호, 2007, 『만주이민문학』 문예출판사, 34~44쪽.

중국내 조선족문학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 문학<sup>13)</sup> · 만주조선어문학<sup>14)</sup> · 조선 현대 작가들의 중국 체험문학<sup>15)</sup> · 재만 조선인 문학<sup>16)</sup> · 만주 조선어 문학<sup>17)</sup> 등으로, 중국에서는 동북현대문학(東北現代文學) · 동북윤합구문학(東北淪陷區文學) · 동북윤합시기문학(東北淪陷時期文學) · 위만주국문학(僞滿洲國文學) · 항전시기문학(抗戰時期文學)으로, 그리고 일본에서는 작가의 국적에 따라 만계문학(滿系文學) · 일계문학(日系文學) · 선계문학(鮮系文學)으로 구별한다.<sup>18)</sup>

이상의 용어들은 작품의 공간 · 작가의 국적 · 작품의 성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연구자들의 관점과 지향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망명문학은 국권회복 운동이나 피신 등 정치적인 이유로 고국을 떠난 이들의 문학으로 실향민들의 현실과 고난을 문제로 삼고 있는 작품들을 가리킨다.<sup>19)</sup> 이민문학은 이민 간 사람들이 이민의 땅에서 생산(발표)한 문학으로 개척민의 정착과정과 수난 등을 그리고 있는 작품들이다.<sup>20)</sup> 반면 재만한국문학이나 연변 문학 등은 작품의 지역성 곧 공간을 중심에 두는 용어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자가 다루는 작가 · 작품(의 성격) · 공간(지역) · 연대 등에 따라 동일한 대상도 매번 다르게 호명되기도 한다. 이렇듯 만주를 다룬 이른바 ‘만주문학’은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만주’ 자체의 성격으로 인해 일국주의나 민족주의 같은 단일한 관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용어의 문제가 입증하듯 ‘만주문학’은 제국주의 시대가 만들어낸 특수한 현상으로서 일국주의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성과 복잡성을 띠고 있어서 보다 보편화한 관점과 태

12) 채훈, 1990, 『일제 강점기 재만한국인문학』 깊은샘 참고.

13) 권철 외 공저, 1990, 『중국 조선족 문학사』 연변인민출판사 참고.

14) 이상범 1997. 1, 『만선일보와 민주 조선어 문학』 『문학과 예술』, 문학과 예술연구소 참고.

15) 최일, 1999, 『조선현대작가들의 중국 체험소설 연구』 연변대학 석사논문 참고.

16) 김호웅, 1998, 『재만 조선인문학연구』 국학자료원 참고.

17) 이광일, 2003, 『해방후 조선족 소설문학 연구』 민족문제연구소 참고.

18) 만주를 소재로 문학 및 용어 정리에 대해서는 전화, 2010, 『한 · 중 작가의 만주체험 문학 연구』 영남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논문, 7~8쪽.

19) 오양호, 1996, 『만주조선인문학연구』, 32~33쪽.

20) 오양호, 1996, 위의 책, 37~38쪽.

도가 필요하다. 이 점에 비추어 조흔파가 한국만주문학의 주류에서 벗어나 ‘만주국’을 타이틀로 내걸고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 완성도를 떠나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 ‘만주문학’은 일제 입식정책(入植政策)에 떠밀린 이민자(소작민)들의 시련과 고난<sup>21)</sup>을 그린, 이른바 피해자의 시선과 민족주의에 고착돼 있어 ‘만주’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전망도 없었고 또 ‘만주문학연구’ 역시 연구대상 자체의 강한 규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만주를 다루고 있는 대다수의 작품들은 저항(반일)이나 협력(친일)이나 하는 이분법의 틀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또 해방직후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를 다룬 작품들의 경우에도 대개 귀환과 정착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축이라 할 리욱과 김창걸 등 정착민의 문학인 재민문학이나, 남쪽을 선택한 염상섭·안수길·허준·김만선 그리고 북쪽을 선택한 현경준이나 김조규 등 귀환자들의 문학도 만주를 자민족중심주의의 차원에서 전유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sup>22)</sup> 조흔파의 『만주국』은 저널리즘의 연재소설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한국인의 수난과 체험이라는 자민족중심주의라는 한국만주문학의 제한된 틀<sup>23)</sup>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적 사고를 가늠해볼 의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만주국』에는 서사의 중심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미약하다는 점이다. ‘만주국’을 중심으로 그 중심과 주변을 아우르는 사건들과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저 연대기적으로 망라되어 있을 따름이다. 물론 이 다양한 인물군상들이 펼치는 갖가지 사건들의 연쇄 속에도 미약하게나마 서사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위만주국’ 황제 푸이를 비롯해서 완룽(完容)·원슈(文繡)·정샤오취(鄭孝胥)·가와지마 요시코(川島芳子)·아마가스 마

21) 依田憲家, 1976, 『滿洲における朝鮮移民』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移民』, 滿洲移民史研究會 編, 東京: 龍溪書舍, 521~24쪽.

22) 김재용, 2011, 『안수길의 만주체험과 재현의 정치학: 국민국가체제 내에서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8쪽.

23) 김재용, 2003, 『새로 발견된 한설야의 소설 ‘대륙’과 만주인식』 『역사비평』63호, 260쪽.

사히코(甘粕正彦) · 도비하라 겐지(土肥原賢二) · 장쥘린(張作霖) · 장제스(蔣介石) · 장쉐량(張學良) 등 주요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며, 다른 하나는 만보산사건(130~36쪽), 마점산의 친일과 항일(173쪽), 장쥘린 일대기와 암살 사건(173쪽), 김구와 윤봉길의 거사(214쪽), 수상 이누가이 츠요시(犬養毅)를 암살한 군국주의 장교들의 쿠데타(241쪽), 황도파의 쿠데타 이른바 2·26사건(312쪽), 장제스와 장쉐량 사이의 갈등(343쪽), 루거우차오 사건(蘆溝橋事件, 366쪽), 노몬한 전투와 그 일화들(401~3쪽), 731부대(445쪽), 원폭 투하(481쪽), 푸이의 퇴위(486쪽) 등의 주요 사건들이다. 따라서 『만주국』의 전반을 효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작품 구성에 영향을 준 문헌들과 주요 인물(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푸이’는 적임자라 할 수 있다. 그는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핵심인물이며, 그가 남긴 자서전 『나의前半생(我的前半生)』이 실록소설 『만주국』의 기본바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만주국』의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의 계보

『만주국』은 1969년 8월부터 1970년 11월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월간중앙』에 연재된 장편 실록소설이다. 첫 회에는 작가의 본명인 조봉순(趙鳳淳)으로 기재돼 있으나 제2회(『월간중앙』 17호)부터는 필명인 조흔파로 연재되기 시작했다. 연재 당시 삽화는 판화형식으로 실렸으며, 삽화가는 최영림(崔榮林)이다. 연재가 끝난 직후인 1970년 12월 8일 육민사(育民社)에서 세로쓰기 520쪽 분량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출간 당시 제자(題字)는 독립운동가로 자유당정권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범석(李範奭, 1900~1972)이, 삽화는 송방(宋邦)이 각각 쓰고 그렸다. 연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한 달 만에 초판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출판사에서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갖고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혼파는 소설을 탈고하고 쓴 「책을 내며」에서,

「月刊中央」에 연재하면서 전례 없이 (...) 회마다 마감이 넘어서야 송고했습니다. 게으른 탓이 아닙니다. 遲筆이어서도 아닙니다. 그만큼 신중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언젠가는 이 素材를 가지고 長篇을 써보려고 資料蒐集에만도 20여년 세월이 걸렸건만, 그것을 정리해서 한회한회 소설체로 꾸미기란 여간 큰 難工事が 아니었습니다.<sup>24)</sup>

『만주국』집필을 위해서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해왔다고 말하고<sup>25)</sup> 이를 소설로 재구성하는 것이 참으로 힘겨운 작업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과 전개로 미루어 볼 때 『만주국』은, 푸이의 자서전 『나의 전반생』을 토대로 하여 유관 자료와 향간에 떠도는 풍문들 그리고 주요 사건들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작품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주국』의 기본 골격이 된 텍스트는 『나의 전반생(我的前半生)』이며, 이 자서전은 1957년 무순전범관리소(撫順戰犯管理所)에서 푸이가 자신의 죄상을 고백하는 「내 최악의 전반생」을 바탕으로 씌어졌다. 푸이의 자서전은 1964년 북경과 홍콩에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자서전으로 출판되었다. 『나의 전반생』은 모두 3권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6)</sup> 제3권에 해당하는 7~9장은 체제의 우월성과 개조교육에 대해 찬미하는 상투적인 글이기에 논의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청 황실의 실상과 이면을 다룬 1~3장과 푸이를 친일적인 물로 만들기 위해 투자와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일체의 전략과 함께 일체의 만주침략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4~6장은 사료적 가치가 있다. 국내에서

24) 조혼파, 1970, 『만주국』 육민사. 「책을 내며」와 「목차」는 페이지 산정에서 빠져 있다. 제1장 1절의 표지부터 1쪽으로 계산하고 있어 인용면수를 표시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1970년 12월에 출판된 『만주국』 초판본을 텍스트로 삼고 있으며, 이하 『만주국』의 본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쪽수만을 표시한다.

25) 「책을 내며」의 말미에 보면 부의의 『我的前半生』을 포함, 26권의 참고문헌 목록이 제시돼 있다.

26) 愛新覺羅 溥儀, 1964. 8, 『我的前半生』, 共叁卷, 香港: 香港文通書館을 참고.

푸이에 대해 가장 먼저 주목한 김준엽 역시 『나의 전반생』의 사료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封建社會의 最高峰에 앉아 富貴와 榮華를 누리면서 人民을 虐待한 皇帝가 人間으로서는 얼마나 卑劣하고 無能한 存在였던가 하는 것을 溥儀 自身の 口로 暴露하며 「勞農兵萬世」「毛澤東萬歲」를 再確認시키려는데 出版의 意圖가 있는 것”<sup>27)</sup>으로 폄하하고 있다. 과연, 푸이는 「내 최악의 전반생」이라는 반성문을 씌으로써 중국공산당 고위간부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인간개조 프로그램의 홍보물로 53세가 되던 1959년 12월 4일 특별 사면되었고, 1960년 <북경식물원>의 정원사로 배속되었다. 『나의 전반생』은 푸이에게 출옥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작품일 뿐만 아니라 조흔파의 『만주국』(1969)을 비롯하여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영화 <마지막 황제>(1987), 에드워드 베어(Edward Behr)의 평전 『마지막 황제』(1987) 등의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원형이 되었다.<sup>28)</sup>

푸이의 『나의 전반생』은 황제에서 시민으로서 생을 마감한 푸이의 극적인 삶과 황실의 생활모습과 굵직한 정치적 사건의 이면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중국공산당이 선전수단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세계인들 - 특히 동아시아 각국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나의 전반생』은 열악한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북경에서 초판만 34,500부가 출판되었고, 출간 직후 홍콩의 석간신문 『신만보(新晚報)』에서 5개월가량 연재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5년 일본의 다이안(大安) 출판사에서 『わが半生』이란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만주국』은 조흔파의 경력과 언어 능력 그리고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다이안 출판사에서 나온 『わが半生』이 저본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나의 전반생』과 『만주국』의 한 대목이다.

27) 김준엽, 1967, 『書評-愛新覺羅 溥儀 著 我的前半生(前 清共宣統皇帝自傳)』, 『중국학보』7집, 한국중국학회, 115쪽.

28) 에드워드 베어의 전기는 이듬해 국내에서도 번역되었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서문>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영화와 거의 동시에 또는 영화와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Edward Behr 지음, 이희구 옮김, 1988, 『마지막 황제』 한마음사 참고.

(1) 사진 네 장이 養心展으로 왔다.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 모두 등글 등글하여 하리코 인형(張リ子) 같았다. 사진속의 얼굴도 아주 작아서 실제로 아름다운지 못생겼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 보고 느낀 대로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장에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것은 만주 額離德特 집안 단공(端恭)의 딸로 이름은 文繡였다. 또 다른 이름은 惠心이며, 나보다 세 살 연하로 사진으로 보았을 때의 나이는 십이세였다. (...) 이 선택의 결과가 太妃의 처소로 전달되자 端康太妃는 불만스러웠다. 이유는 문수의 집안이 가난하고 아름답지도 않아서 그녀가 추천된 것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돼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태비가 추천한 규수는 만주의 正白旗敦布羅 가문 榮源家의 딸로 이름은 婉容으로 字는 慕鴻이라 한다. (...) 사진을 보았을 때의 나이는 열 여섯이었다. 나는 신하들의 권고를 듣고 어찌서 미리 말해주지 않았는가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재차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완용의 사진에도 동그라미를 쳤다.<sup>29)</sup>

(2) 사진 넷 장이 부의 앞으로 왔다. 그러나 얼굴이 다 작아서 미추(美醜)를 가려내기엔 커녕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조차 힘이 들 지경이었다. 부의는 판정이 어려워 주춤대다 사진을 던지면서

「뭘가 뭘지 아리송해서 알 수가 없구나. 좀더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하며 벌렁 누어버리니 시립한 태감이 질겁을 하였다.

「황제 폐하, 그렇게는 아니 되십니다. 태비전에서 고대하고 계시니 지금 당장 欽定(欽定)을 내리셔야 합니다.」 (...)

「무척이나 성가시구나. 그래 알았다. 이리 나오.」

부의는 몸을 뒤집어 넘죽 엎드리더니 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진을 끌어당기어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렸다. (...)

이렇게 해서 뽑힌 것이 경의 태비가 천거한 만주 귀족 단공(端恭)의 딸로 이름이 文수(文繡), 별호를 惠心(惠心)이라고도 하는 나이 어린 소녀였다. 경의 태비는 만족하였으나 매사에 지기 싫어하는 단강 태비의 불만이 대단하였다. 그가 추천한 후보는 역시 만주 명문 출신 영원(榮源)의 따님 완용(完容)으로 字(字)를 모추(慕秋=鴻秋·秋鴻은 訛轉임)라 하는 황제와 동갑인

29) 愛新覺羅 溥儀 著, 新島淳良·丸山 昇 譯, 1965, 『わが半生』上, 大安, 122쪽.

## 16세의 처녀였던 것이다.(27~28쪽)

(1)은 부의의 자서전으로 일인칭 고백체이고, (2)는 조혼파의 소설로 삼인칭 전지이다. (1)를 살펴보면 푸이를 묘사한 (2)의 주요 대목들이 『나의 전반생』을 기초로 재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사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 밑줄 (1)의 서사명제(proposition narrative)들이 (2)에서 작품의 기초적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푸이를 서사의 중심에 놓고 있음으로 결혼 같은 중대 사안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그의 자서전을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연재소설인 까닭에 사실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고 다소 소설적 구성과 윤색을 가해 두 텍스트 사이에는 얼마간의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윤색과 재구성을 위해서 조혼파가 시도한 서사전략은 태감과 푸이의 대화를 끼워 넣는 삽입과 실제 팩트 보다 스토리(의 시간)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는 연장(stretch)이다.

그렇다면 푸이가 자신과 황실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치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자신을 격하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당연하게도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이다. 비록 무능한 황제였지만, 온갖 정치적 산전수전을 다 겪은 푸이가 중국공산당 당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하지 못했을 리 만무하다. 그는 자서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봉건체제 및 장개석이 주도하는 공화제의 붕괴와 사회주의 등장의 필연성을 그림으로써 당국의 의도에 순응한다.

그러면 조혼파가 『만주국』 집필에 나서게 된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이것은 작가의 이념적 성향이나 작품의 내용 검토를 통해서 살펴볼 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 우선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오랫동안 방송계에서 일하면서 다져온 대중성에 대한 감각에 더해 연재 당시 영화계 등을 중심으로 ‘선풍’이 불었던 만주신드림이 조혼파에게 적잖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만주는 1960년대부터 한국영화의 한 흐름을 이루었던 이른바

<만주액션영화>의 주요 소재였다.<sup>30)</sup> 임권택의 <두만강아 잘 있거라>(1962)를 비롯하여 정창화·김목·최경섭·권영순·정진우·강범구·이용호·임원식 등을 거쳐 신상옥의 「무숙자」(1968)에 이르는 대중영화들이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만주국』 연재 이전에 1964년 3월 북경에서 푸이의 자서전 『나의 전반생(我的前半生)』이 출판되었고, 이와 거의 동시에 푸이의 자서전은 홍콩의 석간신문 『신만보(新晚報)』에 연재되어 동아시아 각국에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곧바로 홍콩과 일본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다.<sup>31)</sup> 방송인이자 신문사의 논설위원을 역임하면서 국제 동향과 대중문화의 추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조훈파가 동아시아 각국에 분 푸이 열풍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sup>32)</sup> 여기에다 항상 흥행이 될 만한 콘텐츠에 목마른 월간잡지 『월간중앙』으로서는 ‘만주’는 시기적절한 저널리즘용(用) 콘텐츠였던 것이다.

결국 조훈파는 황제에서 식물원 정원사로 생을 마감한 드라마 같은 푸이의 일대기와 영화계를 풍미했던 ‘만주 웨스턴’의 열풍을 지켜보면서 푸이를 ‘소설’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푸이의 일대기에 정치야사들을 섞으면 <대한 백년> 같은 물건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른다. 게다가 당시 한국의 저명인사들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박정희를 정점으로 한 만주인맥은 한국을 지배하는 최고의 실세들이었음으로 금단의 영역이었던 만주는 대중들에게 은근한 호기심의 대상이었으니 그는 흥행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오랜 방송계 생활로 다져진 대중성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지닌 조훈파는 여기에서 ‘푸이’라는 또 다른 흥행물 ‘알개’를 본 것이다. 가령 『만주국』의 다음같은 장면 즉 자금성 내에서 자전거 타기 놀이와 기

30) 안진수, 2008. 12, 「만주액션영화의 모호한 민족주의」 『만주연구』8호, 201~202쪽.

31) 愛新覺羅 溥儀 著, 新島淳良·丸山昇 譯, 1965, 앞의 책, 1쪽.

32) 조훈파가 방송계에 첫발을 들여놓은 것은 1927년으로 <경성방송국>에 촉탁으로 입사하여 아나운서로 활동한다. 해방 후에는 <중앙방송국>에 있다가 1947년에 퇴사했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종군작가로 활동했다. 이후 1957년 『국도신문』 『세계일보』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1960년 공보실 공보국장 및 중앙방송국장을 역임하였다. ‘조훈파 연보’에 대해서는 정미영, 2002, 앞의 논문, 76~77쪽.

상천외한 장난질로 내시들을 대경실색하게 만든 “자금성의 개구쟁이(21~26 쪽)” 푸이의 모습에서 얼핏 청춘물 『얇개전』의 주인공 나두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것이 그러하다. 이와 같이 『만주국』은 조흔파의 탁월한 대중성에 대한 감각과 ‘만주액션영화 붐’에서 보듯 1960~70년대 한국사회의 유행과 망탈리페(mentalités)<sup>33)</sup>가 결합된 이채로운 광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4. 아나운서 - 작가가 그린 ‘푸이’와 ‘동아시아’

『만주국』은 청조 말 혼란기에 황제가 되어 기구한 삶을 산 푸이를 중심으로 20세기 동아시아 전역을 뒤흔든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청조의 마지막 황제 푸이는 이 같은 시대상을 구현하고 반영하는 거울 같은 존재이다. 베르톨루치(Bernardo Bertolucci, 1940~)의 영화 <마지막 황제>에 묘사된 것처럼 푸이의 삶은 한 편의 완벽한 드라마에 가깝다. 세 살에 황제가 되었으나 사년 만에 퇴위했고, 장훈의 복벽운동으로 잠시 복위됐다 12일 만에 다시 물러났다. 그 뒤 자금성에서 쫓겨나 천진의 일본 조계지에 머물다 만주국 황제가 된다. 그리고 전범이 되어 9년간의 교화생활을 거쳐 식물원 정원사로 일생을 마친다. 역사상의 수많은 황제들 그 어느 누구도 푸이의 삶과 같은 변화무쌍한 부침과 굴곡을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이는 푸이의 주체적 선택이 아니었다. 세 차례나 황위에 오른 것도, 전범이 된 것도 또 식물원 정원사가 된 것도 모두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언제나 그는 선택되었다. 푸이 평전을 쓴 에드워드 베어(Edward Behr)는 그를 “역사의 각주”<sup>34)</sup>라고도 했다.

33) 아날학파의 핵심 이론가인 루시앙 페브르가 개발한 용어이다. 망탈리테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무의식에 내재된 인식·가치관·취향·감성 등의 복합체로 ‘집단 심성’이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질문명사와는 달리 문화와 심층의식 등을 탐구하는 정신사적 연구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조한욱, 2000,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39쪽.

34) Edward Behr 지, 이한구 옮김, 1987, 『마지막 황제』 한마음사, 299쪽.

그러나 그는 허허실실의 전략과 난득호도(難得糊塗)의 격언을 충실하게 지켜 술한 위기와 사선을 넘은 “살아남기의 명인”<sup>35)</sup>이었으며, “청초 재건”(91쪽)과 권토중래를 모색하는 교활한 정치인이기도 했다. 그의 이런 정치력 부재와 무능이 어찌면 푸이식 정치였고,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끝끝내 살아남아 권토중래를 노리며 천수를 누릴 수 있었던 보호막이요 비결이었던 것이다. 순진하고 바보 같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 무능의 정치를 발판으로 각 정파와 정치세력들에게 선택되어 결국 세 차례나 황제위에 오를 수 있었다. 여기에서 푸이는 놀라운 적응력으로 전범과 식물원 정원사라는 운명을 감내하면서 끝내 천수를 다 누리는 기막힌 생존술을 보여준다. 김준엽은 이를 푸이의 생존술과 정치적 역량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실권을 가져보지 못한 “有名無實의 皇帝였기 때문에 그는 쏘련이나 中共에서 死刑을 받지 않았을 것”<sup>36)</sup>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 물론 그는 대단히 무능하고 바보 같은 인물이었다. “인민에게 봉사하라는 모택동의 말을 戲畵的일 정도로 정직하게 실행”<sup>37)</sup>하고 고지식한 모습으로 일관한다. 언제나 그는 지시하는 황제가 아니라 지시받는 황제였으며, 무순전범관리소에서 출소해서 식물원정원사로 살아갈 때에도 그는 언제나 타인들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다. 사실 그것은 역사적 이행기에 직면한 전직 황제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역으로 황제위에 무려 세 번이나 오른 자가 제위 외에는 실권이나 정치세력화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시종일관 무능을 자처한 것이라면 그것은 연기였고, 정치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인 것은 조흔파의 관점이다. 그는 이 복잡한 푸이를 오직 『알개』와 『대한백년사』의 차원에서만 다룬다. 푸이와 만주(국)이 가진 이 복합적인 의미와 양가성은 연재기간 내내 외면되고 있었으며, 그저

35) Edward Behr 지, 이한구 옮김, 1987.

36) 김준엽, 1967, 앞의 글, 114쪽.

37) Edward Behr, 이한구 옮김, 1987, 『마지막 황제』, 284쪽.

푸이를 월간지를 구독하는 성인 남성 대중의 정치적 호기심이란 기대지평에 맞추어 한낱 가십거리 내지는 회화적 인물로 소모해버리고 말았다. 청 황족 숙친왕(肅親王)의 딸로 일본 공사관의 수비대장 가와지마 나니와(川島浪速)의 양녀가 되어 일본군 스파이로 암약하다 한간(漢奸)으로 몰려 처형당한 금벽휘(金璧輝) 곧 가와지마 요시코(川島芳子)가 푸이를 보고 “이 사람이 오랜 세월을 두고 동경의 세계에서 애태우며 그려본 장본인이란 말인가”(116쪽)라고 탄식하며 실망하게 함으로써 푸이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확고하게 다져나간다. 그녀의 눈-실제로는 조혼파의 눈-에 비친 푸이는, “큰 키가 수수깡 모양으로 여위어서 볼 품이 없는데다가 좁은 어깨 사이 행금하게 뻗어난 긴 목 위에, 버마제비 같이 작은 머리가 위험천만하게 달려 있는”(116쪽) 형편없는 인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관동군 사병에게 모욕당하는 장면(168쪽), 측실이었던 문수에게 보여준 “부이의 기학성(嗜虐性) 폭행벽”(45쪽), 정치적 무력감에서 생겨난 폭식과 수면과다증세(298쪽), 치질로 고생하며 좌약을 사용하는 이야기(464쪽) 등이 그렇다. 여기에 조혼파는 “원래 키가 커서 싱거운 데다가 주책까지 없으니 대우 받기는 다 틀렸”(334쪽)다는 대목을 관동군 중령 다나카의 입을 빌려 푸이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아편에 취해 “미소년 콜라서 침실의 시중을 들게”(292쪽)하고, 운전기사와 사통하는가 하면 아편 중독으로 도모이(圖門)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는 황후 완릉(完容)에 대한 이야기들을 첨가한 것은 『만주국』의 성격과 지향-월간 대중 잡지 『중앙』의 연재물이었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압권인 것은 천진에 있던 푸이가 만주로 탈출하는 장면이다.

부이는 스포츠 카 뒤쪽에 달린 짐 싣는 칸의 트렁크 뚜껑을 열고 안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갔다. 몸은 여위었어도 키가 큰 그가 좁디 좁은 트렁크 안에 몸을 감추기란 수월한 일이 아니다. 이리 저리 몸을 굴켜 보며 가장 편한 자세가 쭈그리고 앉았다가 이마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고서 엎드리는 것이라고 깨달은 그였다.

「이제는 뚜껑을 닫아라」(…)  
 소리가 나도록 뚜껑이 닫히는 찰라  
 「아이야」

부이는 등뼈가 으스스지는 것 같은 아픔을 참아야만 했다. 트렁크의 쇠뚜껑이 고양이처럼 꾸부리고 옆드린 잔등을 모질게 내려친 것이다.(161쪽)

황제가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차량의 트렁크에 숨어 탈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방법은 내시 기계충(那繼忠)의 짜낸 교육지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결국 푸이의 처지와 권위가 어떠한 상태인지, 나아가 조훈파의 푸이에 대한 관점을 잘 보여주는 예다. 당연하게도 권력과 권위를 잃은 망국의 황제가 겪는 수난과 수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푸이가 일제가 키운 하수인으로 “무식한 녹림(綠林=馬賊) 출신”(70쪽) 장작림을 “만주로 불러다가 괴뢰 정권을 만들어 앞장 세워 놓고 만주라는 땅덩어리의 맛난 음식을 마음대로 요리해 보지는”(94쪽) 관동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대안으로 투입된 차선책이었기 때문이다.

『만주국』의 특징은 전지시점에서 지문(=설명)과 대화(=허구)를 교차시키며 전개된다는 것인바, 지문은 역사적 사실 및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또한 대화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서사 전개의 필요에 따라 허구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가미하고자 할 때 활용된다. 아울러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묘사할 때 다음과 같이,

육군 대신 다나카 기이찌(田中義一)와 계엄 사령관 후꾸다 마사따로오(福田雅太郎) 대장 그리고 미즈노 내무대신의 관심은, 극소수의 조선인 쫓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무정부주의자의 준동봉기(蠢動蜂起)에 있었다. (…) 있을 법하게 여겨지는 조선인의 쫓기로 안목과 관심을 유도하여, 타민족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불러서 민족 결속을 호소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 조작 이용된 것이 소위 「조선인폭동」이란 것이다.(59쪽)

라는 설명이라든지 일제의 장작림에 대한 관심과 푸이가 괴뢰국의 황제로

낙점된 이유와 일본식 신사를 건립하고 참배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의 대목들은,

장작림의 만주복귀, 이것은 일본의 요망과도 일치한다. 만주로 불려다가 괴뢰 정권을 만들어 앞장 세워 놓고 만주리는 땅덩어리의 맛난 음식을 마음대로 요리해 보자는 것이 관동군의 심산이었다.(94쪽)

만주국 황제가 신경에 건국신묘를 건립하고 일본 신을 모셔다 감지덕지 예배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수많은 동족들은 일본 군인의 손에 무참히 죽어 가고 있었다.(426쪽)

『만주국』의 서술 방식과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두 인용문에 나타난 작가는 모든 사건을 올림퍼스에서 내려다보는 신의 위치 곧 드라마 전체를 관할하는 연출자의 위치에 서있으며, 작품 속의 화자는 라디오 방송의 아나운서처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의 전모와 내막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인용문에 잘 드러나듯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의 내막과 관동군이 장쥘린를 지원한 이유 등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여기서 보듯 스토리가 진행되는 사이사이에 필요에 따라 화자(해설자)가 수시로 등장하여 논평과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은 오직 소리로만 메시지가 전달되는 라디오 드라마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조혼파가 오랫동안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방송소설’<sup>38)</sup>을 집필해왔다는 점과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다. 또한 방대한 내용을 다뤄야 하는 실록소설이기에 해설과 논평의 형식을 통해서 독자의 이해도 돕고 동시에 작품 전개 of 효율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아나운서-작가는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단서는

38) 본고가 『만주국』의 방송소설적 특징에 주목한 반면, 서재길처럼 만주와 방송이라는 두 개의 흥미로운 대상에 주목한 실증적인 연구도 있다. 이와 같이 만주가 방송 및 미디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주 지역의 라디오 방송과 그 현상 및 의미에 대해서는 서재길, 2007,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만주의 라디오 방송』 『한국문학연구』33 참고.

그의 어법과 화용에 있다. 우선 메카시즘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유신시대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서술 부분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활동을 서슴없이 “준동”이라 일컫는 데서 조흔파가 어떤 정치적 입장과 비전- 그는 보수적 기독교인이며 한국전쟁 당시 문충 구국대 출신의 종군작가를 역임했다-을 가진 작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그는 작가로서의 특별한 전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식적인 민족주의자이자 평범한 보수주의자였으며, 『알개전』을 쓰고 <대한백년>의 대본을 쓰고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인이었다.

이와 같이 아나운서-방송인 작가가 소재로서의 만주국과 동아시아 현대사를 전유하는 방식은, 지문과 대화라는 두 개의 서술 방식을 이용하여 주로 주요 사건들을 상황에 따라 발췌, 요약(summary), 연장(stretch)하는 극작술이다.<sup>39)</sup> 이 같은 서사 기법은 시모어 채트먼의 서사구성과 서사시간에 관한 논의에서 상론, 제시된 바 있다. 발췌는 스토리 전개상 독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이야기로 사건을 간추리는 것으로, 요약은 실제의 사건을 지문과 설명의 방식으로 간략하게 축소하는 것으로, 그리고 연장은 실제의 사건을 소설적으로 재구성하고 사건에 극적인 효과를 부여할 때 활용되는 것으로 푸이가 배우자를 간택하는 장면에서 확인된다.

## 5. 『만주국』과 만주국

한국소설사에서 만주는 있되, ‘만주국’은 없었다. 만주는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만주국은 침묵의 대상이었다. 간도는 독립투쟁과 유(이)민들의 근거지로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만주국은 식민지 체제의 연장 끈 조선인들 위에 군림했던 당신들의 나라이요 또 하나의 권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5·16을 거치면서 그것은 최고 권력자 박정희와 권력

39) 박진, 2005, 『서사학과 텍스트이론』 랜덤하우스중앙, 48쪽.

실세들의 과거로 조용히 덮어두어야 할 기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만주국은 동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왜 이리 여전히 낯설고 또 당혹스러운가. 기본적으로 그것은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사고하고 살아온 우리에게는 난감한 사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주국은 관동군이 세운 괴뢰 국가이면서도 비록 구호일망정 국민국가의 틀을 벗어나는 다문화·다민족 협화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동아시아의 오족(五族)이 하나의 공동체를 묶어낸 사례라는 사실-이다. 또 한중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블랙홀이며 동북아 현대사의 축도로서 역사적 기억을 간직한 ‘블랙박스’<sup>40)</sup>요 다문화·다민족의 세계화 시대 동북아의 미래를 모색하는 동아시아론으로서는 꼭 거쳐야 할 관문, 그 착잡하고 매혹적이며 당혹스런 존재가 바로 만주국이다.

조흔파의 『만주국』은 금기와 봉금을 넘어 국민국가를 월경한 용감한 작품이며, ‘만주국’을 본격적으로 다룬 한국문학사의 유일한 실록소설이었다. 실록소설을 표방하고 있는 작품답게 『만주국』은 시종일관 마지막 황제 푸이를 비롯하여 만주국 및 동아시아의 주요 정치적 사건과 인물들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이 같은 선구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은 새로운 해석이나 관점에 이르지 못한 채 ‘만주국’을 흥미로운 가십으로 만들라는 저널리즘의 요구와 타협함으로써 ‘만주국’을 『만주국』으로 전유한 대중소설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실록소설임에도 실증적 오류도 적지 않았고, 푸이의 『나의 전반생』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함께 아나운서가 소설에 개입하여 논평과 설명을 덧붙이는 등의 자의적 각색으로 작품의 지향과 정체성마저 모호해져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의 최후를 후일담 형식으로 정리하면서 과도한 요약과 극적인 요소를 만들어 내기 위해 허구적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적잖은 실증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sup>41)</sup> 다음의 인용문은 한 예이다.

40) 한석정 외, 2009, 『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 동북아역사재단, 11쪽.

41) 『만주국』의 다음과 같이 실증적 오류로 인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지적한 논문

부의는 동경서 열린 전범(戰犯)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중공에 인계되어 갖은 고초를 다 겪은 후 석방은 되었으나 연금(軟禁) 상태로 감시와 구제 밑에 이숙현(李淑賢)이라는 중공 스파이와 허울 좋은 결혼을 하여 계속 감시를 받아 오다가 1961년 10월 17일 요독증(尿毒症)으로 사망하니 때의 나이가 61세였다.(489쪽)

중국의 푸이 전문 연구자 왕경상(王慶祥)에 따르면, 푸이가 사망한 시기는 1961년이 아니라 1967년 10월 17일 새벽 2시 30분이며, 사인은 전립선암이다.<sup>42)</sup> 이를 증명하고 확인한 이는 1962년 푸이와 결혼, 그의 다섯 번째 부인이 된 리수셴(李淑賢, 1924~1996)이다. 리수셴은 항주(杭州) 출신으로 북경 조양구(朝陽區) 관상의원(關廟醫院) 소속의 간호사였다.<sup>43)</sup> 그는 푸이와 자신과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은 문학 역사자료정리전문요원 주진강(周振強)과 인민출판사 편집부장 사중희(沙會熙)<sup>44)</sup>였으며, 모택동과 주은래도 자신들의 혼사에 매우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왕경상과의 대담에서 그녀는 1961년 1월부터 푸이와 교제하면서 연모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으며 자발적인 결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믿을 수 없는 일방적 진술이다. 이 결혼은 리수셴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의 기획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또 다른 푸이 연구자인 에드워드 베어도 리수셴은 40대 간호사로 “(푸이와) 같은 옥중에 있던 전 국민당군 장교의 인척”이 소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녀에게 병약한 “부의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짜증나는 일”이었다. 또 그녀는 매우 “말씨가 거칠었”을 뿐만 아니라 푸이의 병상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나의 전반생』의 원고료나 황실의 남겨진 보물

---

도 있다. “이 책에서 만보산 사건은 조선인 지도자 혁명덕과 장백산 등 두 젊은이가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혁명덕은 조선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며 박영석의 책에 ‘장백산’이란 농민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조훈파의 『만주국』은 허구적 요소가 많은 야사 형식의 책으로 생각되어 참조하지 않는다.” 장영우, 2010, 『‘농군’과 만보산 사건』, 『만보산 사건과 한국근대문학』, 김재용 외 공저, 역락, 46쪽.

42) 이숙현 구술·왕경상 정리, 1992, 『마지막 황제 부의, 그 인생 후반기 생애와 사랑』 광야의 번, 237쪽.

43) 이숙현 구술·왕경상 정리, 1992, 위의 책, 33쪽.

44) 이숙현 구술·왕경상 정리, 1992, 위의 책, 43쪽.

등에만 관심을 쏟은, “악처”였다.<sup>45)</sup>

조흔파가 ‘만주국’에 대해서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의존한 대목은 『나의 전반생』 제2권의 5장과 6장이다.<sup>46)</sup> 5, 6장의 주요 내용은 푸이가 천진에서 도비하라 겐지와 만나 만주국 건국과 복위 제안을 받고 탈출하여 만철(滿鐵)이 운영하는 온천장 대취각(對翠閣)에 연금에 가까운 상태로 머물면서 자신의 복위와 건국 문제에 관한 관동군 내부의 논의를 지켜보았다는 이야기이다. 푸이는 자신이 비록 연금상태에 있었지만 자신을 집정으로 추대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국의 황제가 아닌 공화제의 집정이라면 관심이 없다고 버텼으며, 그러자 관동군 측에서 우선 집정에 취임하고 후일 헌법 등 제도의 정비가 끝나면 국가를 공화제가 아닌 제국으로 전환하여 황제로 복위시켜준다는 타협책을 제시해왔다는 비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만주국』의 제1장 탈출·제2장의 등조(登祚)·시위소찬(尸位素餐)·고립(孤立) 등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묘사된 내용은 대개 푸이가 트렁크로 기어들어가 우스꽝스런 몰골 탈출하는 장면, 일본인 사병에게 모욕을 당하는 모습, 친일 마적과 항일 마적에 대한 이야기, 정효서를 수반으로 하는 허수아비 내각의 구성, 리튼 조사단 이야기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도 조흔파는 푸이를 관동군에게 이용만 당하는 허수아비 황제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이것은 조흔파의 관점과 『만주국』의 지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나의 전반생』은 자기변호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책이다. 전범재판을 거쳐 수용소라는 극도로 억압된 환경에서 쓴 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연히 이런 글에서는 푸이와 관동군 사이의 밀약이나 푸이 자신의 정치적 교활함이 정치적 범죄는 축소, 은폐되고 부득이함과 수동성만을 강조하는 변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자신에 대해 서술하는 이른바 자기서술적 글쓰기인 자서전

45) Edward Behr, 이한구 옮김, 1988, 앞의 책, 288~89쪽.

46) 『만주국』에 수용된 『나의 전반생』은 第5章 到東去北의 夜現土肥塲·白河偷渡·在封鎮中·會見板垣, 第6章 傀儡劇開幕·職位與職權·國際調查團報告書 등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愛新覺羅溥儀, 『我的前半生』1卷, 2卷의 목차를 참고할 것.

은 ‘고백적’이기보다 어쩌면 자기변호와 합리화의 수단 곧 가장 효율적인 자기은폐의 수단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고백이야말로 최고의 은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서전들은 대개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텍스트, 다시 말해서 비판적이고 섬세하게 읽는 고도의 독해가 요구되는 텍스트들이다. 그럼에도 조흔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보는 편향된 독법으로 『나의 전 반생』을 읽고 푸이 특유의 무능의 정치 또는 정치력 부재의 정치라는 고도의 정치를 간과한 채 저널리즘의 요구에 따라 그를 형편없이 우스꽝스런 인물로 읽고 그려내는 등의 단선화와 자의성이라는 독법과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말았으니, 이것이야말로 『만주국』이 한낱 야사형 이야기로 떨어지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만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만주를 친일적 괴뢰국가이며 푸이는 여기에 놀아난 허수아비 황제로 가십성 인물로 규정하는 단선적 관점과 ‘만주국’에 대한 인식의 부재일 것이다. 사실 ‘만주국’은 괴뢰국이고 유사국가지만, 동아시아 국가 간의 평화와 새로운 공동체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의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만주국은 우리에게 무엇이며, 어떤 국가였는가. ‘만주국’은 온갖 반일 저항세력들과의 전쟁이라는 값비싼 댓가를 치르면서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는 장작립 같은 군벌을 통해서 만주지역을 관리하고자 했던 관동군의 기획이 차질을 빚자 동북삼성 일대를 중화민국에서 분리하여 독립시킨 다음, 상징적 의미가 큰 푸이와 군벌과 친일 마적집단 등을 끌어들여 이곳을 유사국가로 만들어 지배하는 이른바 ‘분치합작(分治合作)’이라는 군국주의적 기획이 탄생시킨 괴물국가였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대소·대미전 준비를 위한 지구전의 거점”이며<sup>47)</sup> 일본의 경제적 위기와 농민 문제를 타개할 돌파구이기도 했다. 미국의 비즈니스맨들이 ‘만주국’을 일본의 연장 내지 ‘일본+중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거나<sup>48)</sup> 병영국가(garrison state)<sup>49)</sup>로 보고

47) 임성모, 1995 봄, 「일본-만주국」 『역사비평』28호, 178쪽.

48) 임성모, 1995 봄, 「일본-만주국」, 178쪽.

있었다는 것은 ‘만주국’의 복잡하고 특이한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만주국’은 그런 괴물 국가지만, 뜻하지 않게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문화·다민족으로 구성된 오족공화(五族共和)라는 동아시아공동체-물론 이는 일제의 대동아 이념이 만든 허구논리이다-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하나의 지독한 아니러니다. 바로 여기에서 만주국을 괴뢰국이라 쓰고, 박정희 정권이 추구한 개발 모델의 원형(遠形)이자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이라 읽는 이중적 독법이 정당성을 얻는다. 나아가 만주는 동북아 현대사의 축소판이면서 박정희가 주도한 개발독재시대 한국 근대화의 롤 모델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이 만주국과 박정희가 주도한 근대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한석정과 임성모의 연구는 개발독재가 구축한 한국 모더니티의 괴물성을 해명할 귀중한 단초를 제공해준다. 병영국가 만주국과 유신시대의 제4공화국, 관동군의 만주경제개발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sup>50)</sup> 아마가스 마사히코가 주도한 만주국의 국책영화와 제3공화국의 반공영화,<sup>51)</sup> 식민지 보건과 위생의 패러다임을 반복하고 있는 만주국의 위생국가담론<sup>52)</sup>과 제3공화국시대의 용의검사 및 의례간소화 같은 정신운동<sup>53)</sup> 등 ‘만주국’과 ‘제3, 제 4공화국’의 유사성에 주목하는 박정희 정부의 탈신문화 작업이 그러하다. 일개의 대중소설인 조흔파의 『만주국』에서 ‘만주국’의 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관점을 바라는 것은 물론, 무리한 요구일지도 모른다. 사실 『만주국』은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 ‘만주국’을 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한국소설사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선구적 의미

49) 한석정, 2007,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 출판부, 85쪽.

50) 한석정 외, 2009, 『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 18쪽; 고바야시 히데오 저, 임성모 옮김, 2004, 『만철』 산치림, 133쪽.

51) 한석정 외, 2009, 『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 22쪽.

52) Charlotte Furth, 2010, “Introduction: Hygienic Modernity in Chinese East Asia”, *Health and Hygiene in Chinese East Asia: Policies and Publics in the Long Twentieth Century*, Angela Ki Che Leung and Charlotte Furth ed., Duke Univ. press, p.12.

53) 한석정 외, 2009, 『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 42쪽.

이상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작품이다. 그것은 그저 저널리즘의 요구에 따라 성인 남성 독자의 시선에서 대중적 관심을 끌만한 사건과 인물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에피소드 중심의 구성에 간간이 논평적 화자가 등장하여 설명과 해석을 덧붙이는, 이른바 라디오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동북아 현대사의 축소판이며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박정희 정부가 시행한 경제개발 및 근대화 사업의 선례인 만주국과 봉건제·공화제·유교적 다민족 병영국가·사회주의 등 무려 네 개의 체제를 가르치르면서 극적인 삶을 살아왔던 푸이의 정치적 변모 등 보다는 주로 푸이를 가십성 인물로 전유하는 대중지향적 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푸이가 아닌 푸이 또 ‘만주국’이 아닌 ‘소설-만주국’을 그리는 데서 끝나고 만 초과현실-이른바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6. 결론 - 『만주국』이 거둔 것과 남긴 것

『만주국』은 제목만 ‘만주국’일뿐 1908년부터 1945년 종전까지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과 인물들을 다룬 대중적 실록소설이다. 푸이·장쥘린·만보산사건·만주건국·루거우차오 사건 등 ‘만주’와 ‘만주국’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는 있지만, 작품의 내용을 보면 ‘만주국’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 오히려 의의할 정도로 만주·일본·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중요 사건과 에피소드들을 거의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작품이 연재되던 시기가 제3공화국 말기였기 때문이었는지 일본군 장교로 항일 운동 진압에 참전했던 박정희를 포함하여 만주 출신 정권 실세들의 이야기가 누락돼 있고, 동북항일연군 등 항일무장투쟁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 ‘실록소설’이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다뤄진 내용은 성인 남성 독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정치 야사와 미확인 비사(秘事)들로써 『만주국』

은 『대한백년』같은 “아사” 내지 대중소설의 차원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만주국』의 이 같은 대중추수주의는 작품 후반부로 가면서 더욱 강화되는데, 46세에 도모이 형무소에서 이편중독으로 사망한 완룽의 최후(491쪽), 오스키 사카에 암살범으로 유명한 만주영화협회 이사장 아마가스 마사히코(甘粕正彦)의 자살(492쪽), 오스카 와일드의 시를 인용하며 자살한 수상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 거리의 구두닦이가 된 전 육군 소장 구와오리 가쓰시로(桑折勝四郎)(520쪽) 등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작품을 마무리함으로써 정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푸이의 『나의 전반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가 하면, 푸이의 정치적 의미와 그의 정치술을 간과한 채 푸이를 가십거리용 인물로 전유하는 등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 역시 또 다른 푸이 시물라시옹 현상이며, 따라서 『만주국』은 실제 현실이 아닌 가공의 초과현실 이른바 통속적 하이퍼 리얼리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은 항일과 친일 또는 귀환과 정착의 코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만주문학과 달리 서사의 지평과 범위를 만주와 동아시아로 확장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흥미진진한 사건과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점차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는 ‘만주국’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환기하고 있다는 점은 『만주국』의 의도하지 않는 기여라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만주국’은 관동군이 세운 기만적인 유사국가였으나 동아시아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동(大同)’의 기치 아래 오족의 협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론이 지향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착잡한 선례였으며, 한국 자본주의의 기원이며 롤 모델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조흔과의 『만주국』은 많은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대중소설이지만, 종래의 한국 만주문학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만주를 동아시아적 시야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중앙일보사, 1969~1970, 『월간중앙』  
조흔파, 1970, 『만주국』 육민사.

### 2. 단행본

권 철 외 공저, 1990, 『중국 조선족 문학사』 연변인민출판사.  
김호웅, 1998, 『재만 조선인문학연구』 국학자료원.  
박 진, 2005, 『서사학과 텍스트이론』 랜덤하우스중앙.  
오양호, 1996, 『만주조선인문학연구』 문예출판사.  
\_\_\_\_\_, 2007, 『만주이민문학』 문예출판사.  
이광일, 2003, 『해방후 조선족 소설문학 연구』 민족문제연구소.  
이효석, 1983, 『이효석전집』5권, 창미사.  
조한욱, 2000,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조흔파, 1970, 『대한백년』전5권, 삼성출판사.  
\_\_\_\_\_, 1975, 『사건백년』 정음사.  
채훈, 1990, 『일제 강점기 재만한국인문학』 깊은샘.  
최원식, 2009,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창비.  
한석징, 2007,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 출판부.  
\_\_\_\_\_, 2009, 『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 동북아역사재단.

### 3. 논문

김재용, 2003, 「새로 발견된 한설야의 소설 ‘대륙’과 만주인식」 『역사비평』63호.  
\_\_\_\_\_, 2011. 12, 「안수길의 만주체험과 재현의 정치학 : 국민국가체제 내에서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만주연구』12집.  
김준엽, 1967, 「書評 - 愛新覺羅 溥儀 著 我的前半生(前 清共宣統皇帝自傳)」, 『중국학보』 7집, 한국중국어학회.  
서재길, 2007,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만주의 라디오 방송」 『한국문학연구』33.  
안진수, 2008. 12, 「만주액션영화의 모호한 민족주의」 『만주연구』8호.  
이상범 1997. 1, 「만선일보와 민주 조선어 문학」 『문학과 예술』, 문학과 예술연구소  
이혜경, 2009 겨울, 「웃음의 울타리를 넘어 내 곁으로 날 듯 혹은 말 듯 : 趙欣坡의 『알

- 개전』에서 時代를 다시 읽는다』 『아동문학평론』133호.  
 임성모, 1995 봄, 「일본-만주국」 『역사비평』28호.  
 長山, 송강호 역, 2010. 12, 「manju, 滿洲 명칭 분석」 『만주연구』10집.  
 장영우, 2010, 「‘농군’과 만보산 사건」 『만보산 사건과 한국근대문학』, 김재용 외 공  
 저, 역락.  
 전 화, 2010, 「한·중 작가의 만주체험 문학 연구」 영남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논문.  
 정미경, 2002, 「조흔과 소년소설 연구」 인하대 대학원 석사논문.  
 최일, 1999, 「조선현대작가들의 중국 체험소설 연구」 연변대학 석사논문.  
 최정옥, 2007. 12, 「만주국문학의 연구」 고려대 중문과 박사논문.

#### 4. 국외서 및 번역서

- 李淑賢 구술 · 王慶祥 정리, 정순옥 · 김내선 · 김진 공역, 1992, 『마지막 황제 부의,  
 그 인생 후반기 생애와 사랑』 광야의 변.  
 愛新覺羅 溥儀, 1964, 『我的前半生』(共叁卷) 香港 : 香港文通書館.  
 愛新覺羅 溥儀 著, 新島淳良 · 丸山 昇 譯, 1965, 『わが半生』(上, 下), 東京 : 大安.  
 고비아시 히데오 저, 임성모 옮김, 2004, 『만철』 산처럼.  
 尹東燦, 2010, 『滿洲文學の研究』東京 : 明石書店.  
 依田憲家, 1976, 「滿洲における朝鮮移民」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移民』, 滿洲移民史研究  
 會 編, 東京 : 龍溪書舍.  
 Baudrillard, Jean 저, 하태환 역, 1992, 『시뮬라시옹』 민음사.  
 Behr, Edward, 지음, 이희구 옮김, 1988, 『마지막 황제』 한미음사.  
 Furth, Charlotte, 2010, “Introduction : Hygienic Modernity in Chinese East Asia”, *Health and  
 Hygiene in Chinese East Asia : Policies and Publics in the Long Twentieth Century*, Angela  
 Ki Che Leung and Charlotte Furth ed., Duke Univ. press.  
 Johnston, Reginald F., *Twilight in the Forbidden City*, 김성배 옮김, 2008, 『지금성의 황혼』  
 돌베개.

## ■ Abstract ■

## Manchuria · Popular Fiction · East Asian Discourse

— On Cho, Heun-Pa's faction *Manchukuo* —

Cho, Sung-Myeon

Cho Heun Pa's *Manchukuo*(滿洲國, 1970) is a kind of faction dealing with the Puppet nation Manchuria, the last emperor of Ching Àìxīnjuéluó Pǔyí, and the modern history of East Asia from 1908 to 1945. It is noteworthy that Cho wrote and published these story 18 years earlier than Bernardo Bertolucci's famous film *The Last Emperor*, regardless of the quality of the work to have principal political events and figures of modern East Asia during the 1st and 2nd World War. However, Cho's *Manchukuo* could not be defined exactly Manchu story. Because it is title only—not Manchuria's story but the East Asia's politic and historical mishaps. Despite its title *Manchukuo*, the faction eventually would become popular fiction to meet the needs of adult male readers and monthly journalism through substituting and appropriating a gossip story for Àìxīnjuéluó Pǔyí & Manchuria. Above all, we think the biggest problem of the novel to avoid the stories related to the tyrant president Park Jong Hee himself & his staffs of the regime from the Military Academy of *Manchukuo* and to prelude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of the Korean leftists in Chinese East Asia. There are three problems with this novel—that is empirical error, arbitrary interpretation, and pandering to the tastes of readers. But this novel has meant to represent Manchuria as the introspective object of the East Asian countries and to bring light Pǔyí as the epitome of modern East Asian history, depart from the limits of Korean modern novels to be tied with the feature of immigration's and refugees' literature.

Key words : Cho Heun Pa, Manchuria, Àìxīnjuéluó Pǔyí East Asia, Popular fiction, faction, Korean modern novel